

대행 스님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것도 다놔버릴 수있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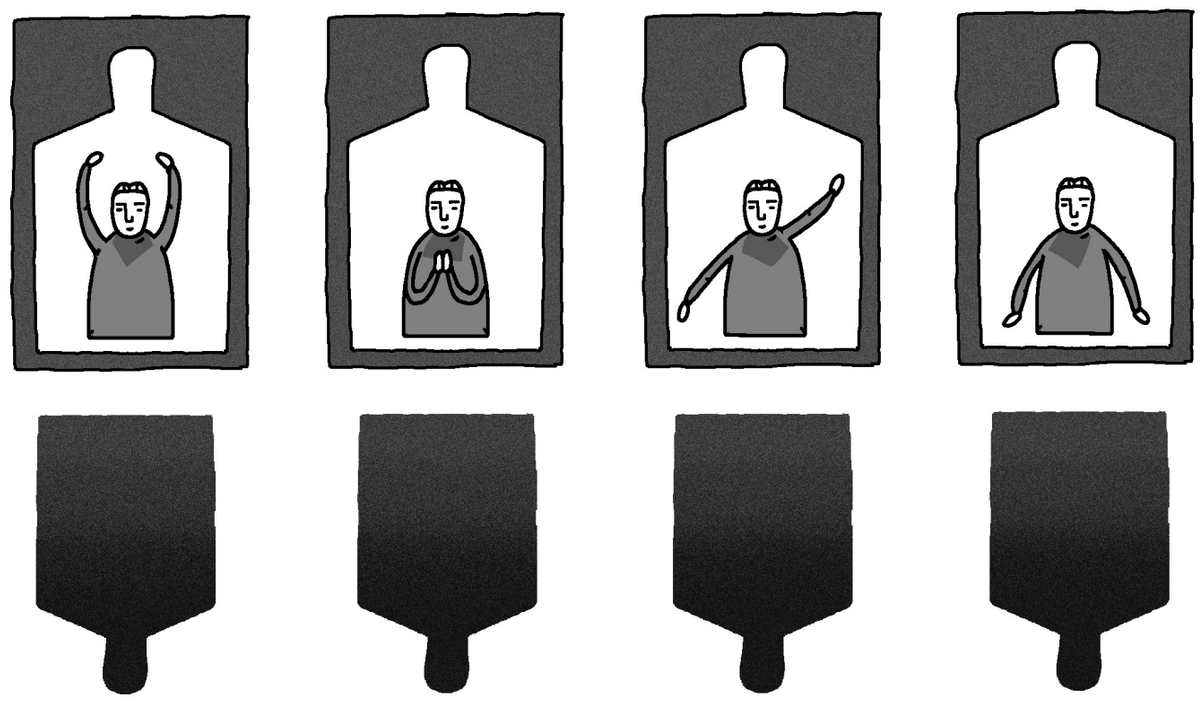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을 작년에 만나 뵙고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또는 작년이라는 말을 해 놨고 올해라는 말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면 질서가 문란하겠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질서와 교양, 교육, 충성, 효도, 의례 의식이나 모든 천 · 지 · 인 삼재의 그 질서적인 자연의 법칙, 이러한 문제들을 새삼스럽게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더욱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화엄 세계를 저렇게 (뒤편의 목탱화를 가리키시며) 해 놓은 것은 천지인 그 삼재의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를, 세상 살아나가는 도리를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 영화를 봐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죠. 그거 실감하셨습니까? 이렇게 구르든 저렇게 구르든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 죽었어도 또 되살아나. 그게 무슨 원리인가. 주인공이 없다면 마땅히 이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 또 살림살이에서도 자기의 마음이 없으면 육체가 돌아가질 않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 아무리 똑똑하고 제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뛰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주인공이 살지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어, 영화를 봐도. 여러분이 아마 실감하시리라고 믿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 주인공을 진실히 믿습니까?

대중 예.

큰스님 그 믿는 마음은 '주인공, 이런 걸 해 주십시오, 저런 걸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마음에서 일차적으로는, 한 말을 되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일차적으로 내가 믿는다,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을 거기에다가 다 놔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악과 선 일체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을 수가 있다면, 바로 놓고 난 뒤에, 양면을 돌아가면서 다 놓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 거기서 생산이 되느냐. 생각 내는 마음입니다. 믿고 놓아서 생산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천 리를 갈 수도 있고, 한 찰나에 저승에 갈 수도 있고, 미래에 갈 수도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여기 앉아서 집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와 더불어 이 세상에 광대무변하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근본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 마음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근본을 알 수가 없어. 또 이 세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을 알 수가 없어. 근본입니다! 내놓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근본 자리에서 광대무변하게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구, 이렇게 놓고 가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안 되는 것도 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놓는다면 우린 어떻게 살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진짜로 믿는다면, 다 거기에 진짜로 믿고 놓고 마음을 잘 낸다면 일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음을 잘 내! 꿈을 꾸고도 자기가 언짢게 생각을 하고 '아이구, 꿈 잘못 꿨구나. 이거 언짢은 꿈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언짢게 재앙이 옵니다.

또 조상에게도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상들에게도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 형제가 있다면 형에게도 자식이 있고 나한테도 자식이 있고 동생한테도 자식이 있겠죠. 형에게 자식이 있으면 형의 제사는 그 자식에게 밀어던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났겠나. 참 감사하구나.' 하고서 그날을 맞이해서 심중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제삿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덮어놓고 착을 붙일 거나 안 붙일 거나 다 붙여 돌아가서는 집안의 가환을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내는 걸 그냥 우습게 보고 하루 살면서 그냥그냥 쉽게 생각 낸다고 그러지마는 보이지 않는 그 자체에서는, 생각 한 번 내는 데 보이지 않는 물질 없는 물체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도리를, 그렇게 마음 한 번 내는 게 귀중하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는 그 생산처가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심봉은 그냥 거기에 심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움죽거리지 않죠, 비교한다면.

생산처에 자동적으로 번호 없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면 넝마전은 넝마, 무쇠전은 무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전부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줄줄이 줄줄이 붙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심봉에다가 생각하는 걸 좋게 생각해서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아가서 나한테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려도 모르신다면 이건 큰일이죠. 자기가 자기를 믿고 생산을 해내는 데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마음을 잘 쓰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이 조금만 남이 억울한 소리를 해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탓으로 돌리질 않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착을 두게 되고, 욕심을 두게 되는 건 내가 생각 한번 잘못한 까닭입니다. 내 앞에 닥치는 거 닥치는 것대로 갖게 되면 갖게 되는 거고, 가진 것 내버릴 필요도 없고 끌어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욕심부리지 말랬다고 재산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착을 두지 말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관리인이에요. 잘 쓸 수 있는 관리인입니다. 마음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또 생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각을 잘하면 말도 잘하게 되고 행도 잘하게 되지마는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행과 말이 잘못 나갑니다.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건 알면서 받고, 몰라서 지키지 못하고 행을 저지르는 것은 모르고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받는 일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억울하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업보가 많아서 이러느냐?"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어저께 없는 오늘은 없죠. 그럼으로써 내가 하지 않은 게 어디 내 앞에 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생산처!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앞에 말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만 가지 생산을 할 수 있다. 닥치는 대로 생각을 잘해서 놓는다면 스스로 아주 훌륭하게 만 가지 생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자연법에 의해서 아주 출중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깨달으면 독 안도 없고 나올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천 년 전에 그렇게 했고 단군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주인공을 타파 못 한다면, 자기 내공을 타파 못 한다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의 삼세심 내공을 타파 못 합니다. 삼세심의 내공을 타파 못 한다면 사공법을 몰라. 사공법을 모른다면 원심력을 기르지 못해서 원통자활을 못 해. 이것이 바로 자기한테

☞ 22면으로 계속

